

跋

사람은 모름지기 國家에 忠誠하고 父母님께 孝道하므로써 人間으로
 서의 道理를 다하는 것이며 家門의 傳統과 根源을 알고 지켜 宗祖하고
 그 遺業을 繼承發展시키는 것이 子孫된 道理라 하겠는데 家勢不運하
 여 東分西列 故鄉을 떠나 累代를 지내는 동안 門中과의 往來가 杜絶
 되었었으나 그런 中에도 先代의 記錄이 脈絡을 이어 왔다

그러나 族譜를 모시기 못하고 있었음을 恨스럽고 悚懼스러워 百方으로 探
 問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嘆息만 하던 中 天幸으로 甲辰譜(舊譜五卷)
 가 吾門中에서 發見되고 祖父 諱商悅公께서 所藏하셨던 世系表와 教旨
 까지 保存되어 있음을 알게 되어 龍이 如意珠를 얻은 듯 喜悅에 넘쳤다

後孫된者로서 無識하고 容劣하여 祖上에 對한 不考가 莫甚함을 痛
感하고 于先 家乘譜를 編纂코지 急히 서들렸으나 鷄城君后五代孫(諱
應珍)의 諱字가 甲辰譜(舊譜)와 丁酉譜의 諱字가 相異하여 深思熟考
끝에 家寶로 傳守 保存 되어 온 世系表와 教旨에 準하여 甲辰譜에 依
據 編輯하였음 밝히 드는 바이며 次后 大同譜 編纂에 參考하기바란다
本譜를 編纂하는데 있어 慶州金氏宗親會中央本部 財政部長이신 太師
公后 敎官公派 基喆氏의 協助가 多大하였으며 議政府市의 東哲從弟
의 物心兩面의 積極的인 協助로 桑村公后 鷄城君派 家乘譜가 發刊되게
되었음을 感謝하오며 本譜 發刊을 契機로 하여 崇祖精神을 높이고 敦睦
을 敦篤히 함을 懇切히 바라는 바이다

西紀一九八四年 甲子二月 日

鷄城君十五代孫 東燮 謹識

慶州金氏忠愍公派家乘

先祖

二世

三世

四世

五世

六世

仁瑄

子則麗

子匹鈞

子貞裕

子宗誠

子裔

見下六

高麗文科壯元睿宗十年三四四八年乙未以郎中如遼謝落起復官歷

官殿中內給事

官衛尉寺主簿

官都監判官○乙丑譜公忠穆王朝文科壯元云而麗史榜目無公名且攷世代公是忠穆王以前人而其間絕遠前譜所錄誤矣

誠字一云誠○官禮賓省丞

朝散大夫衛尉寺卿至檢校太子大

師○一云三六八

○年丁亥連魁三

場忠穆王親授紅

牌賜馬紅鞋許着

金花帽○墓開城

郡閭麻里或云十

鷹里○先是遼遣

王徵來命王落起復故遣使謝之女真兵起道梗還國○舊譜公於敬順王不知為幾代孫而敬順王是高麗景宗三年

三三一一年戊寅薨後二三八八年睿宗十年三四四八年乙未公為郎中以此推之其間疑失七八代一云景宗戊寅之

於睿宗乙未為一百三十八年未詳是否○又按趙仲耘氏族源流任敬昌姓苑叢錄皆云憲康王七世孫未知何所據而云耶今不可考矣又云三四四○年丁亥文科壯元高麗史睿宗丁亥無設科之事而忠穆王三年三六八○年丁亥取金仁瑄等云此則樂安金氏遠祖也同名故必是誤知而誤錄者○乙丑譜凡例曰考之麗史則憲康王之傳子孝恭無嗣只有一桂桂娥夫人則太師為憲康後之說恐或傳訛